



가톨릭마산

연중 제11주일

2024년 6월 16일

제2622호



올리브 나무(성 안티모 수도원, 이탈리아 토스카나)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에제 17,22-24
- 화 답 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제 2 독 서 2코린 5,6-1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 복 음 마르 4,26-34
- 영 성 체 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김현우 가브리엘 신부
호계본당 주임

“하느님의 다스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느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썩을 트게 하지도, 수확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농부에게는 비를 뿌릴 재주도, 햇빛을 거둘 힘도 없습니다.

농부의 기대와 뜻이 차지할 자리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습
니다.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은 농부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이 주관하시고,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것임
을 확신하는 바로 그 지점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일에 대한 미련도, 아쉬움도, 애착도 기꺼이 비워내고 남은,
작디작은 겨자씨만 한 우리의 실천적 믿음에서부터 하느님의 다스
리심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열악한 환경이라 여겨질지라도 주
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느님
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입니다.

하느님이 주관하시고,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대
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
신하는 바로 그 지점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본당 사회복지분과 연수



교구 사회복지국(국장: 최훈 타대오 신부)은 5월 26일 마산가톨릭
교육관에서 본당 사회복지분과 연수를 실시하였다. 32개 본당에
서 75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라
는 주제로 최훈 신부의 강의를 통해 본당 사회복지분과 위원들의
소양과 영성을 다시금 다진 오전 시간과 본당에서 활동하는 위원
들의 활동 소식과 고충들을 나누며 서로 소통한 오후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장승포본당 ‘순결하신 모후 Pr.’ 2,000차 기념 주회



장승포본당(주임: 한주인 마태오 신부) ‘천상의 모후 Cu.’(단장: 이재현
베네딕토) 소속 ‘순결하신 모후 Pr.’(단장: 이명순 크리스티나)은 5월 29일
2,000차 기념 주회를 실시하였다. 순결하신 모후 Pr.은 1984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40여 년의 시간 속에 수많은 단원들이 성모님
의 군대로서 성모님의 신심을 바탕으로 레지오를 이어갔다. 순결
하신 모후 Pr. 단원들은 2,000차 기념 주회를 맞아 본당 레지오 단
원들, 그리고 교구 공동체와 기쁨을 함께하며 앞으로 3,000차 주
회도 함께할 수 있길 기도하였다.

부스러기의 삶



예수 성심 시녀회/ 진동 요셉의 집



진동 요셉의 집 수녀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카페에 간다. 수녀님들이 농사짓는다면 ‘그렇게 한가한가? 비싼 커피 집에서 마시지 카페에는 왜가나?’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러 카페에 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주말 저녁에 카페를 방문한다. 중국집에도 짜장면 먹으러 가지 않는다. 그럼 뭐 하러 카페나 중국집을 드나들까? 커피 찌꺼기와 계란껍데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다.

커피 찌꺼기와 계란껍데기는 아주 좋은 거름이 되기에 예전에는 우리 수녀원 자체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분원 수녀님들이 모아주시는 걸로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발효시킨 거름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진동 주위 카페 몇 군데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해 오기로 했다. 고맙게도 진동 네거리 근처 카페에서 주말에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도록 해 주셔서, 가지고 오면 말려서 발효과정을 거쳐 밭에 뿌릴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수녀원 아래에 있는 중국집에서도 계란껍데기를 모아 주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 가서 수거해온다.

작년 가을에는 대구 다녀오는 길에 ‘내서 IC’를 지나면서 길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을 1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은 것을 보고는 우리 수녀님 두 분이서 차를 길가에 세운 후, 서른 봉지 이상 되는 걸 끙끙거리며 다 실어 온 적이 있다. 은행으로 액비를 만들어 밭에 뿌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하며 살고 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도 보인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거창한 결과를 바라는 건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산성화된 땅들이 다시 살아나고 매년 점점 악화되어 가는 기후위기가 조금이라도 늦추어지면 좋으련만 그런 희망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멈추고 싶다고? 아니다. 지금까지는 농약을 쓰지 않아서 하늘에서는 새들이 온갖 열매들을 먼저 맛보고 밭에서는 지렁이가 많으니 두더지가 온 밭을 다 후비고 다녀 작물들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다. 거기다 온갖 벌레들과의 전쟁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방식은 자연 안으로 보이지 않게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있고, 자연보다 앞서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해 주고 있다. 더 많이, 더 빨리 수확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멀어지게 해 주고, 부족하고 아쉽기에 더 많이 나를 내어놓고 낮아지게 해 준다. 또 어렵고 느리지만 주위 자연과 형제자매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연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커피 찌꺼기, 계란껍데기 그리고 은행 알맹이에 우리의 수고로움을 한 손갈 얹어주었더니 훌륭한 거름으로 변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의 부스러기 삶에 자연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시니 우리도 당신 나라의 좋은 거름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굳게 믿는다.





자매결연의 큰 다리가 되어 30년 요한 베버 주교

황광지 가타리나/ 가톨릭문인회

그라츠-셱카우교구 56대 교구장 재임(1969~2001)

올해로 그라츠-셱카우교구 자매결연 53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할 사람을 꼽자면 단연 요한 베버 주교가 으뜸이다. 이분은 교구장 취임 이듬해에 신생 마산교구로부터 자매결연을 요청받아 즉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1970년 9월 사절단이 마산교구에 내방하여 실정을 파악하고 돌아가 그라츠교구장과 교구에 보고하였다. 베버 주교는 자매결연을 수락하며 초대장을 보냈고, 1971년 9월 24일 마산교구 장병화 요셉 주교와 함께 자매결연체결서에 서명하고 공포하였다. 그로부터 30년간 자매결연을 결속시키는 큰 다리가 되어 우리 교구를 사랑한 분이다.

첫 한국 사회 만남과 마산교구 내방

마산교구 설정 10주년을 맞는 1976년, 10월 11일 베버 주교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딛게 된다. 서울에 도착하여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의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 서강대학교를 방문했다. 오스트리아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에 도착했다. 몇몇 기관을 방문하고, 박기홍 신부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선교사들을 만나 격려했다. 그리고 포항, 경주, 부산을 거쳐서 드디어 마산에 도착한 것은 15일 밤이었다.



요한 베버 주교

베버 주교가 10월 16일 마산교구를 내방했다. 당시 그분은 여행일지를 꼼꼼하게 적으며 자매교구의 당면한 문제와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 한국천주교의 역동성을 알아냈다.

“마산교구의 본당은 30개, 공소는 125개이며, 1980년까지 인구 50만의 위성도시가 건설될 예정이라 그때까지 새로운 본당들이 설립되어야 한다. 공소 회장 교육은 대단히 미흡, 매년 3일간 연수. 말씀의 전례를 행하지만 성체를 분배하지 않음. 125명의 공소 회장 중 자매는



1976년 황리공소 방문

한 명뿐. 교회는 자매들의 교회이지만 발언권은 형제들이 갖고 있다.”

10월 17일 성지여고 강당에서 마산교구 설정 10주년 기념미사와 기념식이 열렸다. 베버 주교는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사제단 토론회에서는 ‘사제영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가 지원한 진영성모의원을 찾았다. 이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정은 양덕동성당에서 52명 세례식을 집전한 것이다. 베버 주교는 유아세례가 아닌, 많은 성인 세례에 대해 깊은 감동을 가졌고, 기회 있을 때마다 두고두고 되뇌었다.

마산에 체류하는 동안 상남동, 남성동, 완월동, 월남동, 중앙동, 경화동, 고성, 황리공소, 충무성당을 방문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만나고 각종 기관이나 기업체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방면을 대면하며 빼곡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20일 출국했다.

방문후기에 베버 주교는 기존에 지원하는 것 외에도, 새로 건설될 창원에 설립할 본당을 비롯하여 몇몇 손길이 가야 할 곳을 기록했다. 나환자 사업 외에 다른 사업, 교육사업들, 기간 기초사업 후원, 공동체 교육, 노동자를 위한 유치원들을 꼽았다. 제정지원의 가능성들을 검토하며 면밀히 체크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끝내도록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그라츠 자매교구의 날 요한 베버 주교 서한들

1971년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1972년 6월 11일 ‘자매교구의 날’을 시행하게 되어, 매년 그라츠교구에서는 ‘마산교구의 날’ 마산교구에서는 ‘그라츠교구의 날’을 기념하기로 했다. 두 교구장의 서한을 교환하고 상대교구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2차 헌금을 실시한다.

베버 주교는 매년 보내는 서한에서 마산교구에 대한 애정관 관심을 표했다. 항상 활기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면서, 그라츠교구의 사제성소에 대해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당부를 거듭했다.

“그런데 사제 없이는 성사적인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앞으로도 마산에 있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하나의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구에 많은 성소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마산교구 교우 여러분! 나는 마산을 방문했을 때 많은 것을 배웠고 보고 경험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50여 명의 어른들에게 세례성사를 베푼 그 시간은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977년에 보낸 요한 베버 주교의 서한 중 한 부분을 적었다. 이후에도 그분은 3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마산교구 신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라츠교구의 사제성소를 위한 기도를 꼭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사랑의 다리를 만들고자

베버 주교는 자매결연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바치는 정성된 기도의 다리는 수천 킬로미터를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분은 1982년 가을에 요셉 빌헬름 박사 등과 함께 마산교구에 사목방문을 했고, 1984년 5월 6일 한국천주교 200주년 및 103위 시성식에도 참가하였으며, 1988년 11월에도 그라츠교구 사목국장관과 관리국장관을 동반하여 사목방문을 했다.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감탄하고, 마산교구의 환대에 감사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요한 베버는 1927년 4월 26일 출생하였고, 1950년 7월 2일 사제품을 받았다. 1969년 9월 28일 그라츠교구장 주교에 착좌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 선포!’로 사목했다. 2020년 5월 23일 선종하여 그라츠교구 주교좌성당 내 주교 묘소에 안치되었다. 코로나19로 내왕을 할 수 없던 때라 마산교구에서는 그곳에서 사목하는 우리 교구사제를 통해 장례식 관을 어여쁜 꽃으로 단장하여 그분이 베푼 사랑에 정성을 담아 깊은 추모의 뜻을 표했다.



요한 베버 주교 꽃관

▶참고: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 요한 베버 주교 여행일지, 장병화 주교 일지 등

교구장 서리 동정

신학생 방학 인사

일시: 6월 17일(월) 11:00
장소: 교구청

견진성사

일시: 6월 23일(주일) 10:30
장소: 의령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신학생 교구장 서리 방학 인사

일시: 6월 17일(월) 11:00/ 장소: 교구청

신학생 하계연수

일시: 6월 17일(월)~20일(목) 3박 4일
장소: 제주도 성지순례 및 문화탐방

성지 및 사적지 위원회

일시: 6월 18일(화) 11:00/ 장소: 교구청

청소년국 신앙강좌 4

일시: 6월 23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6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6월 23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신학교 지원자 반 모임

일시: 6월 23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연령연합회 마산지구 회의

일시: 6월 22일(토) 14:00~16:00
장소: 석전동성당 지하 강당
내용: 14:00~15:00-상장례 기본 예절(입관)
(강사: 김주화 프란치스코)
15:10~16:00-마산지구 회의
문의: 마산지구 회장 배원철(마카엘) 010-2881-4500

6월 연도가창교육 안내

일시: 6월 30일(주일) 14:00~18:00

장소: 복신동성당
대상: 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각 본당 연령회자에게 신청
참가비: 없음/ 준비물: 상장애식서(연도책)
문의: 교구 연령연합회장 010-6677-6675

2024년 민족화해상 시상식 및 평화아카데미

일시: 6월 19일(수) 19: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강당
수상자: 창일통일마라톤조직위원회
주제: 디아스포라 한민족-재일동포를 중심으로
강사: 임선우 교수(한국학 박사)
주최 및 문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49-7168

한반도 평가위원사

일시: 6월 25일(화) 19:30
장소: 양덕동성당
주례: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주최 및 문의: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49-7168

창원산타체칠리아 여성 합창 단원 모집

연습일정: 매주 화요일 13:00~15:00
장소: 전용 연습실(용지로 103번지)
대상: 20~60대 여성 신자 또는 예비자
경력과 실력보다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한 분(입단 오디션 없음)
활동: 정기연주회, 합창 연습, 음악봉사 등
문의: 총무 010-3177-7976/ jeanne0524@naver.com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마산가정상담센터는 6월 8일 가톨릭 문화원 2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 타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 피정 접수 중)
어름피정(우도자유일정포함):
7월 12일~14일/ 7월 20일~22일/ 7월 25일~28일/ 8월 1일~4일/ 8월 6일~8일/ 8월 10일~13일/ 8월 24일~26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및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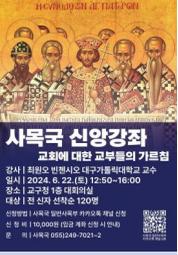
일시: 8월 1일(목)~4일(주일) 3박 4일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영상센터(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내)
피정비: 38만 원(1인실)/ 지도: 허성준 신부(외)
문의: 한릿다 봉사자 010-8599-3127

교구 사목국 신앙강좌

일시: 6월 22일(토) 13:00
장소: 교구청 1층 대회의실
주제: 교회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강사: 최원오 빈첸시오(대구가톨릭 대학교 교수)

신청: 사목국 카카오톡 채널로(QR코드 접속) 접수

대상: 전 신자 선착순 120명
문의: 교구 사목국 055-249-7021

양곡본당 제25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회장: 박희규(사도요한)
사목협의회회회장: 서명숙(에스텔)
여성부회장: 김경희(데레사)
총무분과위원장: 손강희(다니엘)
전례분과위원장: 조경아(아마다)
선교분과위원장: 문은숙(데레사)
청소년분과위원장: 이경숙(벨라벳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영희(효주 아녜스)
시설분과위원장: 최태호(요셉)
홍보분과위원장: 김민자(헬레나)
재경분과위원장: 김영숙(가타리나)
구역분과위원장: 송명옥(틀로레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6월 17일(월) 19:00	중앙동성당	어둠과 그리고 빛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신부(산안동본당 보좌)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살레시오회	6월 15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상시 모임(일정 및 장소 문의 바랍니다)		010-6221-3520	대상: 중~35세 이하 미혼 남성
	상시 모임(일정 및 장소 문의 바랍니다)		010-2567-4164	수도 생활을 원하는 미혼 여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수목장·평장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중운(클레멘스)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15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바누 60g
힐데 크림 400ml/1200ml
힐데 샴푸 400ml/1200ml
힐데 크림 12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 해외 성지순례 모집
8월 18일(주일) 베트남 하노이·사파 5일 (7C)/ 8월 26일(월) 발칸-베주르에 12일 (TK)
9월 2일(월) 베트남 다낭 5일 (KE)/ 9월 23일(월) 홍콩-마카오 4일 (KE)

■ 국내 성지순례 모집
(부산·대구 출발) 제주·한국성지 167 모집 중
7월 26일(금) 인천-의정부교구 3일/ 8월 9일(금) 수원교구 3일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타마병원 지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시절인연 時節因緣

김현주 스텔라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맘 간직을 하며 아아아~ 살아가야지...”

효디오라고 광고하는 것인지, 자그마한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걸쭉하고 구성진 노래가 이어졌다. 마치 ‘피리부는 사나이’의 한 장면처럼, 집 앞에서부터 언덕길을 오르고, 테니스장을 지나 산길 입구까지 노래를 들으며 운동하는 어르신의 뒤를 흘린 듯이 따랐다. 방해되지 않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리만큼의 보폭을 맞추느라 애를 쓰며 뒤따르다가 이 가사를 들었을 때는 용기를 내어 여쭙어 보았다.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시절인연’ 뜻을 찾아보니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때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때가 오게 만들라는 것에 마음이 갔다.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연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지금, 나의 시절인연은 신앙으로 맺어진 ‘성당인연’이다. 산책로에서 책을 읽다가 만난 벨리나에게서 이태석 신부님의 책을 건네받았고, 『울지마 톤즈』를 보며 함께 울었고, 그 손에 이끌려 성당 문턱을 넘어섰다. 어찌다 반찬과 과일을 보내면, 임대아파트의 옆집 할머니, 청소부, 경비아저씨까지 나누어서 오병이어 택배를 보냈든가 착각하게 만드는 벨리나. 제일 어려웠던 시간 동안 버팀목이 되었던 에스텔은 희망을 잃지 말고 등대같이 빛나는 별로 거듭나길 바라며 ‘스텔라’를 권했지만 정작 내가 이정표로 삼는 별은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인 에스텔.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대자부부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칭찬만 하시는 베네딕토 대부님. 일흔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사회복지에 이어 법학에, 성서공부까지 하여 따뜻하면서도 명쾌한 코칭을 해 주시는 루시아 대모님. 교리반에서 만나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는 배려 깊은 비아와 비오. 봉사에 관한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얼굴도 모르는 벨리나를 수년째 몰래 지원하고 있는 천사 미카엘라. 독서, 반주, 해설까지 다방면으로 봉사하면서도 겸손하고, 갓 찌낸 떡을 주기 위해 강풍과 호우주의보를 뚫고 먼 밤길을 달려오기도 한 세실리아와 세레자 요한. 배추가 예쁘다고 상추가 부드럽다고 안고 와서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며 토닥이고 가는 언니 같은 실비아. 갚지도 않는 글 빛만 껴안고 이름만 수필가가 되고 싶은 나에게, 겨울을 품어 낸 봄꽃 같은 시집을 보내주며 글쓰기를 독려해 주는 가톨릭문인회 선배들. 나란히 서서 제 탓을 고하고 따스한 눈길과 손길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깊어지는 중동성당의 인연들...

얼마 전 이순(耳順)을 지나며,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시절, 시절마다 인연을 거치면서 ‘나’를 쌓아왔다.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흐르고 있다면,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인연들, 소중한 ‘시절인연’ 덕분이다.

한화오션 가톨릭 교우회 ‘직장 복음화 및 안전지원미사’ 봉헌



한화오션 가톨릭 교우회(담당: 한주인 마태오 신부)는 5월 29일 직장 복음화 및 안전지원미사를 한주인 신부의 주례로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는 한화오션 사내 안전교육장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화오션 가톨릭 교우회는 1983년 10월 26일 대우조선 가톨릭 교우회로 시작하여, 2023년 5월 한화오션 가톨릭 교우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번 미사는 2019년 3월 안전지원미사 이후 약 5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함께한 신자들은 한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직장 복음화와 안전,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느꼈다. 한주인 신부는 강론을 통해 고향을 떠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전하였다.



머지않아 떠나야만 하는 것들을 격렬히 사랑하라

조우현 십자가의 요한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손에 쥐다’ ‘손에 넣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손은 인간의 소유를 가리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그 정도를 논함에 있어서 만인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선이 있을까요? 손에 쥐려고 하는, 소유하려 드는 우리의 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지요. 품팔이꾼은 자기 일에 대한 정당한 삯을 받기 위해 고역과 고통으로 그득한 인생을 살며(욥 7,1-6) 지혜로운 이는 자기의 결실을 어리석은 이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기도 합니다(코헬 2,12-26).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정당하다 여겨질 수 있는 소유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하게 스러져 갑니다. 그 자체로 유한할 수밖에 없는 소유가 인간 본연의 한계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인 셈입니다.

한편으로, 이 본연의 한계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무언가를 손에 쥐려 드는 것, 끝없이 팽창하는 소유욕. 이를 표현함에 있어 마르 1,32에 나오는 질병과 마귀에 관련된 표현들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병든 이’ ‘마귀 들린 이’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병을 소유한 이” “마귀에 소유당한 이”로 직역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과도하게 손에 쥐려 하다 보니 병까지 손에 쥐는 것, 그러다 마귀의 손에 스스로를 넘겨주는 것, 이것이 한계를 상정하지 않는 소유의 결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판곳으로 나가시어 기도하셨다.”(마르 1,35) 주님의 기도하시는 손은 병까지 손에 쥐려 들고 마귀의 손도 잡는 우리의 손과 다릅니다. 주님의 기도 손은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느님의 손이면서 동시에 한없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손입니다. 세상 창조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끄신 아버지 하느님의 전능한 손을 닮아 있지만 동시에 그 전능하심을 세상의 구원과 복음화에 모두 내주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마르 1,38-39). 이러한 당신 손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상입니다. 못에 관통 당한 그분의 구멍 난 손은 그 무엇도 움켜질 수 없는 손이지만, 바로 그 손이 죄에 물든 온 세상과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포용하십니다. 무한히 비우시기에 무한히 지니실 수 있는 당신 손의 신비는 그저 소유하려 들며 병들게 되고 그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의 손을 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을 맞잡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무소유를 지향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각자 분수에 맞게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작은 손에는 누군가를 담아내야 할 당위와 책임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존재를 한없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자기 손에 쥐어진 존재조차도 언젠가는 수증기처럼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속을 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손은 병과 마귀를 움켜쥐게 되겠지요. 수난 길에 들어서시는 주님을 꼭 붙들여 두려 했고 그로 인해 사탄에 비견된 베드로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마태 16,21-23).

16~17세기의 시인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73번 행 마지막 구절입니다. “머지않아 떠나야만 하는 것들을 격렬히 사랑하라.”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닮아 한없는 자유 가운데에 있는 격렬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